

金寧金氏派譜(春川譜)를 刊行하면서

人類社會에 있어서 國家에는 반드시 歷史가 있고 氏族에는 氏族史가 있었으니 이 氏族史가 오늘날에 族譜이다. 氏族은 곧 血族이며 血族이 發展하여 宗族이 되고 宗族이 모여 部族이 되었으니 部族이 國家의 起源이 되었던 史實은 古代社會 發展史를 보아 氏族은 國家를 形成하는데 根本의 구실을 하였던 것을 잘 알 수 있다. 今番에 우리 宗門의 族譜를 發刊하려는 目的은 乙酉西紀一九四五年 解放을 맞은 後 얼마 안 되서 民族의 大受難을 맞아 우리들의 고향인 關西(平北寧邊)에서 억울하게 逐出을 당하여 男負女戴로 流離會食하면서 自由를 찾아三八以南으로南下하여 各地에 散在하는 宗親들의 現況을 把握하여 이들의 聯合할 수 있는 基礎를 마련하는데 있는데! 또 한 우리 後孫들이 先祖에 對한 그 起源과 由來를 알게 하여 宗親들 사이에 親近感을 높이어 協調의 美德을 育成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先祖의 歷史를 考察해 보면 國難을 당할 때마다 生命을 바쳐 忠節을 다 하였으며 또한 父母任에게 至極한 孝道를 하여 社會와 國家의 으로 美風을 造成하여 國家에서는 孝行旌閭를 내려 크게 表彰하였고 또한 家門과 男便을爲하여 節義를 지켜 家門을 크게 빛내는 烈女가 많이 輩出되었으니 歷代先祖의 功勳과 崇高한 精神을 우리 後孫들을 반드시 龜鑑삼고 矜持를 가지는 同時에 綿綿한 歷史를 이어받을 子孫들에게 偉大한 歷史를 通하여 볼때에 家門이나 國家의 繁榮을 모두 人間들의 힘으로 이룩되었으니 後孫된 우리들은 先祖의 偉業에 뒤지지 않도록 힘써 家道와 國事에 忠貞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現在 族譜熱이 高潮되고 있는 歐美諸國에서도 우리나라의 族譜編修方式이 가장 우수하다 하여 歷史研究의 學究的 價値面에서 높이 評價되고 있다는 事實을 알때에 우리들은 自負心과 矜

持를 가지고 無分別한 近代社會風潮를 銳和하게 分析批判하고 刷新에 全力을 傾注하여 새 風土를 造成하도록 힘쓰는 同時에 學究的 譜學研究熱을 높이 올려야만 할것이다。우리 先祖들께서는 數世紀前부터 學究的으로 譜學研究에 힘써 族譜를 代代로 傳承하였으니 後孫된 者 이를 또한 所重하게 保存하여 다시금 後孫들에게 傳承해야 할 使命이 負荷되었음이니 갖가지의 難關을 果敢히 克服하고 發刊하는 本金寧金氏寧邊派譜가 先祖追仰의 好機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懇切하다。

우리 金寧金氏(金寧金氏)는 始祖大王(始祖大王)께서 鷄林(鷄林)에 나시어 신라천년(新羅千年)의 國紀(國紀)를 다지신 德澤(德澤)으로 慶州(慶州) 땅에서 千年(千年) 동안 王室(王室)의 큰 榮華(榮華)를 누리후, 高麗朝(高麗朝)에서는 慶州(慶州) 안동(安東) 수원(水原) 등지의 봉작(封爵)을 누리오다가 元靖公 諱珣(元靖公 諱珣) 선조(先祖) 의 빛나는 충의(忠義)를 이어 받으신 文烈公 諱時興(文烈公 諱時興) 선조(先祖)께서 外賊(外賊)과 싸우신 勲功(勲功)으로, 다시 안동(安東)에서 金海(金海)로 君爵(君爵)이 옮겨져서 우리 金寧金氏(金寧金氏)의 새로운 시대(時代)가 열렸읍니다。

이후 이조전기(李朝前期)까지 후(或)은 정간공 諱挺丙(貞簡公 諱挺丙) 송암공 諱仁(松菴公 諱仁)과 같이 절의(節義)를 세우시고, 후(或)은 충민공 諱인찬(忠愍公 諱仁贊)과 같이 개국일등공훈(開國一等功勳)에 빛나시는외 누대(累代) 충의(忠義)의 전통(傳統)을 다지면서 대대(代代)로 재상(宰相)의 반렬(班列)을 지켜 오셨읍니다。

문무겸전(文武兼全)하시고 충효쌍전(忠孝雙全)하신 충의공백촌선생 諱문기(忠毅公 白村先生 諱文起) 선조(先祖)께서 역사(歷史)에 유래(類來)가 드문 굳은 의지(意志)로 최근(最近) 이조실록(李朝實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른바 사육신(死六臣)의 한분으로

정충대절(貞忠大節)을 세우시어 아드님 여병재공 휘 현석선조(如瓶齋公諱玄錫先祖)와 더불어 순절(殉節)하시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의공(忠毅公)과 내외종간(內外從間)이요 성재공 휘 익생선조(省齋公諱益生先祖)의 외손(外孫) 최금헌 박팽년 선생(醉琴軒朴彭年先生)까지 또한 사육신(死六臣)의 한분으로 순절(殉節)하신 이후(以後)、만지당공 휘 준(晩池堂公諱遵)선조(先祖)께서는 고흥(高興)으로 만은공 휘 길상(晩隱公諱吉祥)선조(先祖)께서는 평해(平海)정명(正明)으로 숨으시고, 일가(一家)들이 각지(各地)에 흠어져 우리김씨(金氏)는 한때 그믐 달의 어두운 세월(歲月)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先祖)들께서는 훌륭하신 인고(忍苦)로 새로이 충효(忠孝)의 전통(傳統)을 세우시며 서서(徐徐)히 운세(運勢)를 만회(挽回)하엿읍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정유재란(丁酉再亂) 병자호란(丙子胡亂)등 외침(外侵)이 있을때마다 충정공 휘 준영(忠貞公諱俊榮) 분성군 휘 응수(盆城君諱應壽)、접암공 휘 영년(岩公諱永年)、목재공 휘 언공(默齋公諱彦恭)、충효공 휘 유부(忠孝公諱有富)、하은공 휘 선복(學隱公諱善復)、충경공 휘 정세(忠敬公諱景世)축숙공 휘 혼(忠肅公諱欣)、그밖에 여러 크신 인물(人物)들께서 감연(敢然)히 일어서시어 나라를 지키시고 문중(門中)을 중흥(中興)하시기에 힘쓰셨읍니다.

왜제(倭帝)의 침략(侵略)이 있자 매하선생 휘 근배(梅下先生諱根培)、벽산선생 휘 도현(碧山先生諱道鉉)、범산선생 휘 법린(梵山先生諱法麟)、일우 휘 한중(一字諱漢鍾)、보형공(寶炯公)께서 천추(千秋)에 빛날 절의(節義)로 항일투쟁(抗日鬭爭)을 하시

어 광복(光復)의 원훈(元勳)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국(祖國)의 광복(光復)과 더불어 다시 보름달의 성운(盛運)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주천년(慶州千年)의 영화(榮華)를 능가(浚駕)할 새 성운기(盛運期)를 맞이할 준비(準備)로써 일가 끼리 서로 정의(情誼)를 두텁게 하고, 우리의 단결(團結)한 힘으로 우리겨레의 번영(繁榮)을 다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조(仁祖)(一六二四)년에 이른바 천제갑자보(天啓甲子譜)를 간행(刊行)하기 이전(以前)부터 족보(族譜)를 모시고 있었읍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속에 연구(研究)에 연구를 거듭하여 구보(舊譜)를 편집(編輯)하신 여러 어른께 삼가 존경(尊敬)과 감사(感謝)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수(數) 많은 보(譜)들은 교통(交通)과 통신(通信)이 불편(不便)하고 사료(史料)를 구하기 어려웠던 때에 편집(編輯)되었던 까닭에, 그 내용(內容)이 통일(統一)된바가 없었습니다. 각파(各派)를 망라(網羅)한 대동보(大同譜)의 실(實)을 거둔 보(譜)도 거의 없었습니다. 보(譜)의 이름도 각파보(各派譜)에 김녕김(金寧金)씨 족보(族譜) 김해김(金海金)씨 족보(族譜) 양근김(楊根金)씨 족보(族譜) 분성김(盆城金)씨 족보(族譜) 경주김(慶州金)씨 족보(族譜) 등 구구(區區) 하였습니다. 관尊民卑(官尊民卑)와 남존여비(男尊女卑)의 원칙하(原則下)에 편집(編輯)되어 있었읍니다.

뿐만더러 어려운 한자(漢字)로만 적혀 있어서 많은 일가들이 읽지 못하고 모시기만 하는 족보(族譜)에 그쳤던 것입니다.

과거(過去)의 구보(舊譜)들은 전기(前記)한 바와 같은 결함(缺陷)이 있어 사람들은 읽기가 어렵고 이해(理解)하기가 어려운 족보(族譜)를 펼쳐 보기를 꺼렸고 자기선조(自己先祖)들의 얼(魂)과 발자취를 연구(研究)하기 보다는 읽기 쉬운 국사(國史)나 야사(野史 외국사(外國史)를 연구(研究)하는데 그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에 이번 우리의 과보는 서기一九二四年도 평북영변에서 金元根任께서 만드신 三冊을 근거로 좀 알기 쉽게 한글점용으로 편집하여 발행하게 되니 이에 기쁜마음 한량없이 많습니다. 끝으로 자료발굴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族譜研究人 崔承浩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두서없는 간행사에 대신합니다.

서기一九九一年四月

一八世孫 金基淳 書

金寧金氏派譜改正序

維館鐵瓮之南四十里花竹洞即金寧金氏世居庄也粵自先世韓柳文章唐崔富貴鄉族罕比乃者綱常倫彝一類烏有花樹親睦抑又融融如初斷不風靡則祖宗種德曾厚幾許而却有此永錫慎徽之慶於歐波洛洞紆臂賦弓之中耶孔邵聲望有足感人警世令歲甲子春余嘗爲訪信宿于該洞之立揚齋則東方兄南宮叔方有事于改正舊譜而強囑弁之自顧蔑裂萬難奉副但徧聽所以改正之義則一曰採補中闕實祖也二曰別書始祖闕智王以下璿源于篇首也三曰別爲派刊而不屑普通乎慶弔未反之地也噫派譜之舉蓋欲親親自邇似或小於范叅政均是子孫之義實無愧於老蘇譜法之約而盡也不系璿源而特書之所以正名分別嫌疑而絕僭鼠於未萌也允合臣子不敢祖侯王之先王制禮也

削虛位而補實祖亦欲正血統而勉孝弟于今懲往失而戒來孫於後也吁亦快哉顧今草昧乃有此箇美事而管攝一方綱紀者豈偶爾哉詩云殷其雷在南山之陽正花竹金氏庄之謂也不任欽嘆而畧述如茲夫盡心詢謀博採改正而爲此完譜者清虛洙鶴隱坡相倫五衛將秉建晚悟秉亮玉圃元根默齋兌炯哲菴秉喆諸氏是也

金寧金氏派譜改正序

三月庚辰 密陽朴驥欽 序

오직 館鐵瓮의 南쪽 四十里 花竹洞은 곧 金寧金氏가 世居한 곳이라。先代로 부터 韓柳의 文章과 唐崔의 富貴를 鄉族이 전주리 드물더니 이에 網常倫理가 한번 무너졌으니 어찌 花樹의 親睦이 있으며 抑制하건데 또한 融融히 처음과 같아 決斷코 風靡하지 않는다면 祖宗의 심은 德이 일찌기 얼마나 두터워서 문득 이 기리 愼微한 慶事를 歐波津洞의 紵臂賦弓한 가운데에 줌이 있으리오。

甚히 높은 聲望이足히 사람을 感動시키고 世上을 警戒함이 있으니 올해 甲子年 봄에 내가 일찌기 尋訪을 하여 두번이나 該洞의 立揚齋에 留宿하니 東方의 兄 南宮叔이 바야흐로 舊譜를 改正하는 일이 있어 어거지로 머리를 付託하니 스스로 回顧하건대 蔑製하여 一萬가지를 받들어 펴기 어려우되 다만 筧에서 써 改正한 뜻을 들어본다면 첫째는 가운데에 實

祖의 闕한것을 캐서 지음ियो. 둘째는 別달리 始祖 閔智王以下 璿源을 篇首에 쓰는것ियो.

셋째는 別途로 派譜를 刊行함에 普通 慶吊의 미치지 못하는 땅을 깨끗이 여기지 아니함이라.

嘆息하노니 派譜를 하는것이 大概 親한이를 親함에 가까움으로 부터 하고자 하는것은 或

范叅政의 均是子孫이라는 뜻에는 작은것 같지만 實相 蘇老泉의 譜法에 簡約하고 다하였다

는데는 부끄러움이 없는지라. 璿源에 매이지 않고 特別히 쓰는것은 卽 名分을 바르고 嫌疑

를 分別하는 바요 僭亂함을 싹트지 않을적에 끊으려함이니 眞實로 臣子에 敢히 侯王에 先

王制禮를 높이지 않는데 合하는 것이라. 虛位를 削除하고 實祖를 짓는것은 또한 血統을 바

르고 孝弟를 이제에 힘쓰며 지나간 過失을 懲戒하고 오는 後孫을 警戒하고자 함이라.

놀랍고 또한 痛快하다. 돌아보건대 이제 草昧에 이에 이 낮아름다운 일이 있음에 一

方의 紀綱을 管攝하는것이 어찌 偶然이리오. 詩에 이르되 들어오는 그 우리가 南山의 陽地

쪽에 있다는것은 正히 花竹은 金氏의 살던곳을 이름ियो 恭敬하고 嘆息함을 마지 아니하고

大略 記錄하기를 아같이 하니 마음을 다하고 죄를 물어서 널리 캐어 改正하여 이 完全한 族

譜를 한것은 淸虛인 洙鶴과 隱波인 相倫과 五衛將인 秉建과 晩悟인 秉亮과 玉圃인 元根과

默齋인 兌炯과 哲菴인 秉喆 같은 여러분들이라.

三月庚辰에 密陽朴驥欽은 序하노라.

註 融融..물이 깊은 모양.

歐波澤洞..西歐를 절과 끝없는 濁流.

紆臂賦弓..팔을 비틀고 활을 겨름. 난폭하고 교활한 勇猛.

金寧金氏派譜(寧邊—春川譜)

入寧邊祖

理錫

이석

一云利碩

成化十年一四七四年甲午自博川移居寧邊

二世

子喆泳

철영

一云鐵泳

三世

子淑遜

숙순

子淑亨

숙형

四世

子億壽

억수

初諱信守一五一四年甲戌生通大夫

配叔夫人延安金氏

一五一五年乙亥

生墓寧邊獨山面

龍興洞佛谷辛坐

合窆

子億己

억기

子億仟

억천

子瑾碩

근석

五世

子彦沃

彦옥

一五四一年辛丑生

配海州吳氏一五四二年壬寅生墓考

瑩臺下辛坐

子

子武二

무이

子春龍

춘용

贈通政大夫軍資監正

配淑夫人延安金氏

墓博川德安面洞

後泉谷亥坐

子漢傑

한걸

六世

子祐

見下
九六

子應澤

見下
九七

子聖南

성남

贈嘉善大夫工曹叅議

配淑夫人安東金氏

墓大特山北麓甲

坐合窆

子守仁

后无

子禮近

后无